

TRANS- HUMANITIES

Title : 처세술로서의 라 폰텐 우화

La Fontaine's Fables as a Way of Life

Author(s) : 원종익 (WON Jong-Ik)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147-17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처세술로서의 라 폰텐 우화

원종익

1. 서론

라 폰텐은 자신의 우화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가 남긴 240여 편의 우화는 인생사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우화를 “삼라만상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백막(百幕)짜리 연극”¹⁾으로 만들겠다는 작가 스스로의 말에서도 쉽사리 알 수 있다. 따라서 라 폰텐의 우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라 폰텐 우화의 의미망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폰텐 우화의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의 우화가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즉, 라 폰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음이다.

라 폰텐의 우화가 인생에서의 처세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원종익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1) 『나뭇꾼과 메르퀴르』(*Le Bûcheron et Mercure*, V-1), V-1은 라 폰텐의 『우화시집』 중 5권 제의 첫 번째 우화를 말한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만약 삶이 늘 아름다운 것이라면 굳이 무슨 처세술이 필요할까.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다. 라 풍텐 우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라 풍텐의 우화에서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론을 찾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간혹 라 풍텐의 우화에서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실상은 상호 생존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이나 남을 위한 헌신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로 돕고 사는 것마저도 이해 타산적으로 보는 시각이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일지도 있지만, 우화는 이 색안경이야말로 현실을 바로 보는 척도라고 말한다. 결국 우화의 교훈이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교훈은 세상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통용된다. 그러기에 우화의 교훈은 보편성을 갖는다고 말하며, 우화가 아직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삶이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라 풍텐의 우화가 담고 있는 삶의 교훈 역시 무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라 풍텐의 우화가 제시하고 있는 술한 인생의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이 교훈, 즉 처세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

2) 이 점에 있어서는 원종익, 「우화 현실을 이야기하다」, 『프랑스 고전문학연구』 8, 2005. 194-217쪽 참조.

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처세술이 그 당시, 즉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절대 왕정 시대에서 어떤 특정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2. 신중함의 미덕

전통적으로 우화에는 약자와 강자의 대립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런데 약자가 함부로 강자에게 대항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우화는 약자에게 가급적 몸을 낮추라고 충고한다. 이는 곧 ‘신중하라’는 교훈으로 연결된다. 어쩌면 우화 장르는 애초부터 신중함과 고도의 처세술을 요구하는지 모른다. 흔히 우화를 언급할 때, 아이소포스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를 우화의 아버지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노예임을 상기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글쓰기는 무엇일까. 왜 그는 비유와 알레고리의 장르라 할 수 있는 우화를 선택한 것일까. 아마도 이는 약자인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노예 신분인 그가 만약 직설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다면 그의 글쓰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우화라는 에둘러 쓰는 장르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아이소포스의 신중함은 우화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샹브리(E. Chambry)는 아이소포스 우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아이소포스 우화는 사기와 기만에 대하여 우리 눈을 뜨게 해준다.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기와 기만의 희생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말한다(XL). 샹브리는 아이소포스 우화에서 다루는 이 세상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인간사회임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덕목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현

명한 처세술로 빛을 발한다.

라 폰텐의 우화도 이러한 아이소포스 우화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라 폰텐의 1668년에 나온 첫 번째 『우화시집』은 작가의 말대로 아이소포스를 비롯한 이전 우화들을 운문으로 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소포스의 교훈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그런데 만약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라 폰텐이 아이소포스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라 폰텐이 이전 작가들의 작품을 개작했다 할지라도 아이소포스와 다른 교훈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라 폰텐의 우화에 나오는 인간 사회나 인간의 본성도 이전과 변함이 없다. 오히려 라 폰텐은 노예 신분도 아니고, 고전주의 시대의 화려한 궁정 사회를 드나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화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아니 오히려 더 침울하고 비관적인 것 까닭은 무엇일까. 루이 14세 시대 궁정의 화려함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이 바로 라 폰텐 우화에 깔려 있음이다. 이제 이 어두움을 들춰내 보도록 하자.

거친 인생살이에서 신중함보다 더 귀한 처세술이 있을까. 라 폰텐의 「늑대와 암염소와 새끼 염소(IV-15)」라는 우화가 이를 증명한다. 암마 염소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면서 새끼 염소에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어린 염소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대상은 늑대이다. 암마 염소는 상대가 ‘망할 놈의 늑대들’이란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새끼 염소에게 일러두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늑대가 이 말을 듣고는 옳다구나 하고 쾌재를 부른다. 늑대는 암마 염소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른 암마 염소의 목소리를 흉내 내서 ‘망할 놈의 늑대’하고 말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

3) 라 폰텐 우화의 본질은 사실 그의 글쓰기에 있다. 그의 1668년 작품집은 우화의 내용보다는 라 폰텐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후로는 아이소포스 등의 작가를 넘어서 다양한 작가 혹은 분야에서 제재를 구한다.

다. 사실 새끼 염소는 늑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문을 열어 주어도 되련만 새끼 염소는 놀랄 만한 신중함을 보인다. 새끼 염소는 늑대에게 하얀 발을 보여 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 주지 않겠노라고 말한다. 늑대는 깜짝 놀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라 폰텐은 우화의 끝에

한 번 확인 보다는 두 번이 낫고,
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 우화는 「늑대와 양(I-10)」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늑대와 양」에서는 어린 양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침착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잘못은 경솔하다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 시냇물을 마시고 있다는 자체는 대담하고 용감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권장 사항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늑대의 이빨을 피할 수는 없다. 오로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만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 폰텐은 새끼 염소와 늑대의 이야기를 마친 후 곧 바로 늑대를 다시 출연시킨다. 그는 위의 늑대를 보니 그 늑대의 동료 중 하나가 생각난다고 하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간다.⁴⁾ 이전의 늑대는 새끼 염소의 신중함으로 인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 이번 늑대는 부주의와 경솔함으로 목숨을 잃는다. 작가가 이 두 우화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중하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두 배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늑대가 왜 죽음을 맞이하는지 살펴보자. 늑대는 한 시골 사람의 문밖에서 행여나 하는 맘으로 무언가 횡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여기서 송아지, 새끼 양, 칠면조 등 먹을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

4) 「늑대와 엄마, 그리고 어린 아이(IV-16)」

이번에는 늙은 쥐의 사려 깊은 행동을 보자. 우선 라 폰텐은 한 마리 고양이를 소개한다.⁵⁾ 이 고양이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고양이 세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고, 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앙거리인 아틸라(Attila)⁶⁾이다. 이 고양이는 쥐들이 보면 영락없이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과 같은 존재이다. 이 고양이가 이렇듯 공포의 대상이 되다보니 쥐들은 꼼짝 않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머리마저 좋아서 술책을 하나 생각해 내었다. 고양이는 천장 꼭대기에서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죽은 시늉을 하였다. 발에다 끈을 매단 것이다. 쥐들은 드디어 고양이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아마도 이 녀석이 고깃덩어리나 치즈를 훔쳤겠지, 아니면 누군가를 할퀴어서 상처를 냈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켰겠지, 그래서 요렇게 교수형을 당한 거겠지. 쥐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며 장례식 때 모두 함께 소리 내어 웃자고 약속하였다. 쥐들은 이제 저승사자가 죽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 별안간 죽은 고양이가 살아나고 대살육이 시작된다. 일차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쥐들은 다시 소굴로 숨어서는 나올 꿈을 꾸지 못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워낙 술수가 많은지라 이번에는 하얀 밀가루 분칠을 하고 열려진 빵 반죽 통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리석은 쥐들은 또 한 번의 화를 자초해야만 했다. 단 한 마리, 늙은 쥐만이 고양이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멀리서 고양이에게 외친다.

밀가루가 되어도 소용없어.

내가 설사 밀가루 부대가 되어도 난 가까이 가질 않을 걸.

작가는 쥐의 신중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5) 「고양이와 늙은 쥐(III-18)」

6) 훈족의 왕. 5세기 경 즈느비에브 성녀가 아틸라의 파리 침공을 막았다고 한다.

의심은 안전의 어머니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쥐와 고양이의 대립을 통하여 신중함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자. 우화 「고양이와 쥐(VIII-22)」에는 쥐와 고양이의 주연 외에도 부엉이와 족제비가 조연으로 등장한다. 이 네 마리의 동물들은 오래된 소나무의 썩은 몸통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람이 쳐 놓은 그물에 고양이가 걸려들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죽을 위험에 빠진 고양이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마침 쥐가 달려온다. 고양이의 절망과 쥐의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고양이는 마지막으로 쥐에게 하소연한다. 고양이는 쥐가 얼마나 착한 동물인지 입에 닳도록 칭찬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쥐는 만약 자기가 고양이를 구해주면 무얼 대가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 고양이는 자신이 쥐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쥐는 자기가 그토록 어리석은 줄 아냐고 고양이를 비웃으며 발길을 돌린다. 순간 족제비가 근처에 있었고, 쥐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엉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쥐는 얼른 고양이에게로 다시 가서 그를 구해준다. 그 순간 사람이 나타나고, 새로 동맹을 맺은 친구들은 잽싸게 도망을 쳤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양이는 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다.

오, 내 형제여, 이리 와서 나를 안아주게나.

그리 멀리 있다는 건 나를 욕하는 것일세.

자넨 친구를 적으로 알고 있어.

자넨 설마 내가 신 다음으로 자네에게 내 목숨을

빚지고 있다는 걸 잊지는 않았겠지?

www.kci.go.kr

그러자 쥐는

넌 내가 너의 천성을 잊었다고 생각하니?
협정을 맺었다고 과연 고양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 맺은 동맹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우화는 두 동물 간에 협정을 맺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때로는 정치적인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즉,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서 프랑스(쥐)가 네덜란드(고양이)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우화의 교훈이 너무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든 굳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18세기의 샹포르(Chamfort)가 지적하듯 이 우화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신중함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⁷⁾

3. 정치적 신중함

신중함을 기본 교훈으로 하되 좀 더 정치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우화는 「늑대들과 양들(III-13)」이란 우화이다. 천 년 이상 전쟁을 벌여 온 늑대들과 양들 간에 평화 협정이 맺어졌다. 그 동안 늑대들은 길 잃은 양들을 먹이로 삼아 왔고 목동들은 늑대들을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 왔는데 이제 두 진영 사이에 더

7) 샹포르의 견해는 P. Michel et M. Martin, *La Fontaine les Fables*, tome 2, Paris: Bordas, 1985. 89쪽 재인용.

이상 갈등과 싸움은 없을 듯 보였다. 두 진영은 각기 인질을 교환하였는데 늑대들은 자기들의 새끼들을, 양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던 개들을 상대편 진영에 볼모로 보내었다. 한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가 싶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새끼 늑대들이 점차 자람에 따라, 이들은 살찐 양들을 목 졸라 죽이고 숲으로 몸을 감추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어미 늑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었고 늑대들은 세상모르고 잠자던 개들을 모조리 처치하였다. 우화는 여기서 끝을 맺고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한 인간들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여야 한다.

평화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나도 여기에 동의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적들과의 평화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화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힘없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이다. 천성이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들과 무슨 평화 협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피해만 있는 법이다.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법이다. 우화는 아이소포스에서조차 볼 수 있는데 더불어 플라투르크의 데모스테네스의 생애에도 나온다. 아테네의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사람들에게 독려한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데모스테네스와 다른 항전파들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평화를 유지시켜 주겠노라고 말하자 데모스테네스는 이 우화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들려준다. 만약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말에 넘어가서 자신과 다른 지도자들을 적에게 넘겨주면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는 큰 위험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 그가 이 우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이다. 우화에서 알렉산더는 당연히 늑대이고 아테네 시민들은 양이며 데모스테네스 자신은 양들을 지키는 개를 가리킨다. 또한 라 폰텐 시대의 사람들은 이 우화를 당시 프랑스의 루이

www.kci.go.kr

14세가 네덜란드에 취하고 있던 긴장 관계를 변호하는 의미를 찾기도 한다.

위의 우화는 특히 냉엄한 국제 관계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작품이다. 한 순간의 평화는 껍이나 달콤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달콤함에 취하가는 영원한 고통을 맛볼 수도 있다. 물론 상대가 늑대가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상대라면 서로 악수하는 것이 더 큰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때로는 늑대가 양의 얼굴을 하고, 양이 늑대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신중함의 덕목은 약자일 때 더욱 절박하게 요구된다. 강자의 경우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위기에 처하더라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힘없는 자에게는 신중함이 생명과도 같은 좌우명이다. 위의 우화들에서 쥐나 양과 같은 약자들이 신중함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힘센 자가 비록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어느 날 쇠항아리가 질항아리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⁸⁾ 질항아리는 자기의 몸이 워낙 허약한지를 아는지라 머뭇거리지만 쇠항아리가 자신을 보호해주겠다는 말에 같이 가기로 한다. 쇠항아리는 질항아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곁에 바짝 붙어서 길을 떠났다. 뒤뚱뒤뚱 세 발로 걷는 항아리들의 여행길은, 그러나 얼마 계속되지 못 하였다. 너무 붙어가다 보니 질항아리는 쇠항아리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기와 처지가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보다 힘이 센 자와의 접촉에는 가급적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을 이 우화는 일깨워주고 있다.

8) 「질항아리와 쇠항아리(V-2)」

4. 사랑에서의 신중함

위의 항아리의 우화는 역으로 힘센 자가 약자를 대할 때에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강자에게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의 우화 「사랑에 빠진 사자(VI-1)」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강자라도 방심을 하면 목숨을 빼앗기기 십상이다. 한 고귀한 혈통의 사자가 우연히 한 양치기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사자는 소녀와 결혼하기를 청하였는데 소녀의 아버지는 사자보다는 좀 유순한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었다. 그러니 사자에게 딸을 주기는 영 내키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자의 청혼을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사자에게 말하길,

제 딸이 워낙 섬세해서 말이지요,
당신이 애무하고자 할 때
그 발톱이 제 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 당신의 발톱을 깎고 이빨을 다듬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입맞춤은 덜 거칠어질 것이고
당신도 더욱 달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딸도 걱정 없이 당신에게 화답할 것이니까요.

사랑에 눈이 먼 사자는 두말 않고 이에 동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사자는 달콤한 결혼은커녕 개들의 발톱과 이빨에 시달려야 했다.

사랑, 사랑이여, 우리가 너의 포로가 되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신중함이여, 이제 안녕”.

www.kci.go.kr

신중함은 우리 인생 도처에서 유용한 덕목이지만 사랑할 때도 필요하다. 특히 사랑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속성이 있는 관계로 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이렇듯 자신의 발톱과 이빨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준다. 삼손이 자신의 머리칼을 깎이는 것도 사랑에 있어 신중하지 못함이 아닌가. 사랑이라는 것은 강자가 자신을 움아낼 수 있는 내면의 덧이다. 이는 처음에는 절대로 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달콤한 향내가 가득한 꽃으로 다가와서는 일순간 가시가 되어 우리의 심장을 도려낸다.

아이소포스에게 있어서 위 우화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 자기의 강점을 잃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의 놀림감이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라 폰텐의 우화도 이 우화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라 폰텐은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우화 자체도 당시 재색을 겸비한 세비네 부인⁹⁾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작품 첫 부분에 사랑의 담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한 마리 사자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기묘한 스승이라고 라 폰텐은 세비네 부인에게 바치는 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라 폰텐이 아이소포스의 우화를 사랑의 담론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당시 궁정 사회 귀부인들의 취향을 의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¹⁰⁾

5.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

신중함의 미덕은 종종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운명과 삶에 만족하라는 교훈과 맞물린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중하지 못함은 대부분의

9) 그녀는 라 폰텐 우화의 애독자이기도 하였다.

10) 라 폰텐 당시, 문학의 주 독자는 궁정 사회의 구성원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우 탐욕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다. 앞 우화의 사자 역시 욕심이 앞서서 동물이다. 사자라면 사자와 짝을 맞추어야 할 텐데 그는 난데없이 인간과 함께 살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신세를 망친다. 사자의 욕심이 그에게서 신중함을 앗아간 셈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신중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경우는 황소만큼 커지려다가 배가 터지고 만 개구리가 될 것이다.¹¹⁾ 또한 이미 살피 본대로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느 이야기도 허튼 욕심을 갖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곳간으로 들어간 족제비(III-17)」에 나오는 족제비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¹²⁾ 날렵한 족제비 아가씨가 아주 좁은 구멍을 통하여 곳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녀는 병이 이제 막 나은 상태인 까닭으로 곳간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 족제비는 나갈 요량으로 아무리 구멍에 몸을 집어넣어도 대체 통과를 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해 쥐 한 마리가 충고를 한다.

당신은 그 때는 이처럼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마른 몸으로 들어 왔으니까, 나가려면 다시 살을 빼셔야지요.

우리는 탐욕에 찬 족제비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우화에서 한 사냥꾼의 욕심은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¹³⁾ 사냥꾼은 우선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 죽였다. 사슴 새끼도 지나가다가 화살을 맞고 둘은 하늘나라 여행길의 동무가 되었다. 이 정도면

11) 「황소만큼 커지고 싶은 개구리(I-3)」

12) 족제비는 프랑스어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가씨라는 호칭을 붙인다. 아이소포스의 경우에는 배고픈 여우로 되어 있다. 또한 호라티우스 역시 그의 『서간집』에서 이 우화를 다루고 있다.

13) 「늑대와 사냥꾼(VIII-27)」

충분한 수확물인데 사냥꾼은 만족을 못하고 거대한 멧돼지에게 눈독을 들였다. 힘들기는 하였지만 사냥꾼은 멧돼지마저도 땅에 눕힐 수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 사냥꾼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밧고랑을 따라 걷고 있는 자고새를 보고는 화살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멧돼지가 정신을 차린 다음 마지막 힘을 내어 사냥꾼에게 달려들어 복수를 하고는 자신도 숨을 거두었다.

라 폰텐은 곧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위의 우화가 욕심쟁이 사냥꾼에 해당된다면 이제는 구두쇠 늑대가 무대에 나올 것이다. 늑대가 마침 사냥꾼과 멧돼지가 벌여 놓은 피투성이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에게는 진수성찬 파티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다.

오, 행운의 여신여어, 내 당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드리리라 약속합니다.

네 마리 시체가 이리 뻗어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그렇지만 아껴 먹어야지, 이런 기회는 참으로 드물거든.

늑대는 이런 말을 하다가 사냥꾼이 갖고 있던 화살에 눈을 돌린다. 이걸 우선 먹자, 이걸 창자로 만든 거야, 냄새를 맡아 보면 알 수 있지, 그리고는 팽팽히 당겨져 있는 활을 건드리다가 그만 새로운 시체가 되고 만다.

라 폰텐은 늑대의 우화를 인식한 늑대라고 평하며 욕심 많은 사냥꾼과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함이라는 것도 탐욕과 다름없고, 특히 늑대가 죽은 것은 새로운 먹이에 대한 욕심에서 야기된 것인 만큼 이 두 이야기는 탐욕이 파멸을 부르는 예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 폰텐은 이 두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우화의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거창하게 시작한다.

www.kci.go.kr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는 광기어린 욕심,
괴물 같은 인간이여, 너의 눈은 신들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바라보는구나.

이 책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나는 너와 헛된 싸움을 벌여야 하는가?
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너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인간이여, 현자나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대는
결코 “이것으로 충분해, 이제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으려는가?
서둘러라, 친구여, 살아 갈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오.
나는 그대에게 이 말을 지겹도록 되풀이 한다.
그 말은 한 권의 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즐기라 - 그렇게 하지- 그런데 언제부터? - 내일 당장
오, 친구여, 죽음은 자네가 길을 가다가도 데려갈 수 있다네.
오늘부터 당장 즐기게나, 두려워할지니,
내 우화에 나오는 사냥꾼과 늑대와 비슷한 운명을.

위의 우화는 라 폰텐의 두 번째 『우화시집』에 실린 것이다. 시인은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뿜는다. 헛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꾸짖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기도 하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본성 때문이리라.

그런데 사냥꾼과 늑대의 비참한 운명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오늘을 즐기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이 우화는 욕심을 내지 말고 살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넘어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이 학파는 향락주의나 쾌락주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때로는 방종과 무질서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아 절제와 인내를 통한 정신적인 쾌락을 지향한다. 따라서 라 폰텐이 여기서 ‘즐기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상통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라 폰텐이 우화 첫 구절에서 비난하고 있는 바로 ‘모든 것

www.kci.go.kr

을 차지하려는 광기와 동일시된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만약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채우려 한다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기는커녕 끊임없는 공간을 만들어 가며 도망칠 것이다. 이를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파멸로 이끌게 마련이다. 부질없는 욕망 채우기는 그만두고 현실의 삶에 충실 하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자 이 우화의 메시지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단어는 ‘오늘’이란 말이다. 이는 인간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말이다. 에피쿠로스 사상은 인간의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 폰텐이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것은 시간이 인간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며, 죽음이 어느 날 옆에 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즐기라는 것은 미친 듯이, 세상의 종말이 온 듯이 그렇게 즐겨야 한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바로 세상은 무질서의 구덩이에 빠지고 인간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이 도처에서 발현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에피쿠로스가 전하는 행복한 인간의 삶이란, 지혜와 정직함과 의로움이 없는 불가능하다. 오늘을 즐기라는 것은 충직한 오늘을 보내라는 뜻이다.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극도의 고상한 삶의 미덕인 것이다.¹⁴⁾

오늘을 즐기라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이를 또 다른 시간, 즉 천국에서의 무한한 시간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충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곧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늘나라에서의 무한한 시간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14) 이 우화에 나타난 에피쿠로스 사상은 *La Fontaine, Fables*, édition de M. Fumaroli, Le livre de poche, 1985, 910쪽 참조.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결국 분수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 교훈에 가장 적절한 우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 쥐와 시골 쥐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 우화를 처음 지은 사람은 호라티우스인데 라퐁텐은 원래의 작품에 내용상 별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도시 쥐가 시골 쥐를 초대해서 성찬을 베풀지만 누군가의 방해로 받고, 이런 불안한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는 시골 쥐는 얼른 도시 쥐에게 작별을 고한다. 비록 음식은 소박할지언정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시골 쥐에게는 더욱 맛나고 소중하다.

우화에서 당나귀는 어리석은 동물로 자주 나온다. 「당나귀와 강아지 (IV-5)」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당나귀는 자기는 그토록 일을 열심히 하건만 매나 얻어맞고, 강아지는 일도 안 하는데 주인의 귀여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는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소중하게 보이기 위하여 주인을 애무하기로 한다. 당나귀의 머리 속에는 강아지를 따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강아지가 앞발을 주인을 향해 들면 주인이 강아지의 입을 맞춰 주는 것이 너무도 보기 좋았던지라 자기도 그리 하면 반드시 사랑 받으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두 발을 주인 앞에서 들어주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당나귀는 느릿느릿 주인을 향해 가서는 아주 사랑스럽게 주인의 턱을 쓰다듬고자 한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생각으로는 우아하다고 할 정도의 노래까지 덧붙인다. 그러나 당나귀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정겨운 손길이 아니다. 주인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그는 일순 피땀 놀라긴 했지만 곧 바로 당나귀에게 몽둥이세례를 퍼붓는다. 이와 더불어 희극은 끝을 맺는다.

라퐁텐은 이 우화를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시작한다.

타고난 능력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것도 멋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서툰 사람은 무엇을 하든

www.kci.go.kr

결코 신사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라 폰텐은 세상에는 하늘이 내린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도 소수여서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만약 자신이 남보다 특출한 인물이 아니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라 폰텐 우화의 삶의 철학이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못하는 어리석은 당나귀가 또 한 마리 있다.¹⁵⁾ 한 정원사의 당나귀는 늘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시장에 아침 일찍 풀을 실어 나르기 위해 달콤한 잠에 방해를 받는 당나귀는 운명의 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다른 주인을 주었는데 그는 가죽을 다듬는 무두장이었다. 그런데 매일 무거운 가죽을 짊어져야 하는데다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당나귀는 또 다시 신에게 불평을 하였다. 당나귀는 불평의 대가로 숫쟁이를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나귀는 고된 일에 시달려서 매일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다시금 당나귀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자 화가 난 운명의 신은 이렇게 말한다.

무어라고! 이 당나귀는 백 명의 왕보다도
나를 더 귀찮게 하는구나.
대체 자기 혼자만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제 놈의 일에만 신경 쓰란 말인가?

그렇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불평을 한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의 불평을 다 들어준다면 신이라 한들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15) 「당나귀와 그의 주인들(VI-11)」

우화 하나를 더 예로 들어보자.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다.¹⁶⁾ 그에게 는 하녀가 둘이 있었는데 모두 놀라운 실 짓는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운명의 실을 짓는 여신도 이들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러나 이 비할 데 없는 솜씨를 지니고 있는 하녀들의 삶은 고달프 기 짝이 없었다. 특히 새벽에 닭이 울면 지체 없이 일어나 일을 시작해 야 하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기 그지없었다. 노파는 하녀들을 부려먹는 것 외에는 대체 다른 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두 하녀는 불만이 쌓 이기 시작했다. 망할 놈의 닭, 그들은 닭만 새벽에 울지 않으면 자기들 이 잠을 더 잘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하녀들은 닭을 잡아다가 목을 비틀어 죽여 버렸다. 이제 하녀들은 늦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좋아 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 걸, 노파는 닭이 죽자 새벽이 언 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뒤달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버릴 까 걱정이 된 노파는 마치 도깨비라도 된 듯 잠도 안자고 온 집을 누비 고 다녔다. 이제 하녀들은 잠에 들자마자 노파의 수선 때문에 일어나야 만 했다.

라 폰텐은 우화 마지막에 두 하녀들이 겪는 신세를 오디세우스가 카 리브디스를 피하다가 스킨라를 만나는 처지에 비유하고 있다.¹⁷⁾ "여우 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우리네 속담과 상응하는 이 우화 역 시 아이소포스의 우화에서 본 뜬 것인데 아이소포스의 교훈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은 결국 자기들이 이것 저것 계산을 너무 하다가 생긴다.'라 는 것이다. 라 폰텐의 우화도 이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그저 묵묵히 현실에 순응하라는, 즉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라는 뜻이다.

16) 「노파와 두 하녀(V-6)」

17) 진퇴양난의 뜻으로 많이 쓰임.

6. 결론

라 폰텐의 우화는 현실적이다. 작가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한다. 그는 운명의 무서운 힘을 잘 알고 있다. 하녀들은 자기의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운명을 바꾸다가는 자칫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중함의 미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인간은 불행 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는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라 폰텐의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울하기 그지없다. 두 하녀의 우화는 무언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것은 하녀들과 노파 간의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데다가, 하녀들의 고생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동물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펼쳐지다 보니 이 불평등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노파가 무슨 악의가 있다거나 심한 억압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녀들의 처지가 너무 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혹, 17세기의 신분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길 지도 있지만 그래도 심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현재 사회에서 보면 이는 하녀들이 불쌍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노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도 좋을 성 싶다. 여하튼 우리는 하녀들의 신세가 여하튼 바뀌길 원한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라느니, 분수를 알라니 하면 참으로 세상이 야속하고 슬프게 느껴진다.

그렇다. 간혹 라 폰텐의 우화에 이런 슬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화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준다. 현실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은 어찌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른다. 혹은 바꾸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현실은 어둡다고나 할까.

신중함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분수를 알라고 말하는 라 폰텐의 우화는 분명 우리 인간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는다. 그런데 라 폰텐의 우화는 단순한 처세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 폰텐의 우화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치하에서 각별한 의미를 획득한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궁정 사회, 아부와 모함이 난무하는 정치 사회, 이러한 상황에서 라 폰텐의 우화는 절묘한 처세술을 제공한다. 궁정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라 폰텐의 우화에서 신중함의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 폰텐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이며 체제 순응적이다. 그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개구리들(III-4)」에서 아무리 현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부정하지 말라고 권한다. 아니, 차라리 체념하라고 말한다. 그저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무기력하고 약한 자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라 폰텐의 우화는 얼마나 현실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 폰텐은 절대 권력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설사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더라도 여기에 맞서지 말라고 충고한다. 라 폰텐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생존을 위한 처세를 말할 뿐이다. 프랑스 고전주의는 화려함과 장대함, 세련됨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그 문화는 찬란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비판과 체념이 숨어 있고, 라 폰텐의 우화는 바로 이를 대변한다.

18)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한대로 라 폰텐 우화의 교훈은 때로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노인네와 당나귀(VI-8)」의 우화에서는 “우리의 적은 바로 주인”이라는 당나귀의 대단히 도발적인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라 폰텐 우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반증한다.

Works Cited

- La Fontaine. *Œuvres complètes: Fables, Contes et Nouvelles*. établie par Jean-Pierre Collinet. tome I.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1.
- Adam, Antoine.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au XVIIe siècle*. Paris: Domat, 1948-1959.
- Bornecque, Pierre. *La Fontaine fabuliste*. Paris: SEDES, 1975.
- Boutang, Pierre. *La Fontaine, les Fables ou la langue des dieux*. Paris: Hachette, 1995
- Bray, René. *Fables de La Fontaine*. Paris: Nizet, 1946 (1ère éd. 1929).
- Bury, Emmanuel. *L'Esthétique de La Fontaine*. Paris: SEDES, 1996.
- Chambry, E. "Notice sur Ésope et les fables ésopiques". *Esope Fables*. Paris: Les Belles Lettres, 1960 (1er édition: 1927).
- Duchene, Roger. *Jean de La Fontaine*. Paris: Fayard, 1990.
- Fumaroli, Marc. *Le Poète et le Roi*. Paris: Fallois, 1997.
- Leplatre, Olivier. *Fables de La Fontaine*. Paris: Gallimard, 1998.
- Mongredien, Georges. *Recueil des textes et des documents du XVIIe siècle relatif à La Fontaine*. Paris: CNRS, 1973.
- Orieux, Jean. *La Fontaine*. Paris: Flammarion, 1976.
- Précis de littérature française du XVIIe siècle*. Dir. par Jean Mesnard. Paris: PUF, 1990.

La Fontaine's Fables as a Way of Life

WON Jong-I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 Fontaine's Fables reflect a human society that is essentially dark and pessimistic. The human being by nature must struggle for survival. Mankind's numerous vices and faults are revealed in his Fables. We can now pose a question: How should one behave in this cruel society? Among the many morals that the Fables teach, we can above all cite "prudence." Exposed to a lot of dangers, man must be armed with prudence. Some fables, for example The Wolf, the Nanny-Goat, and the Kid (IV-15), The Wolf, the Mother, and the Child (IV-16), The Cat and the Rat (VIII-22), and more, show clearly that people who lack prudence come to a bad end. La Fontaine's Fables specify that insatiability is one of the vices that provoke imprudence. In the end, La Fontaine advises us to adjust ourselves to our actual situation. This teaching can be applied to the life at the Court of Louis XIV. To survive under his reign of absolute power, the resigned life is the most important moral, in the view of La Fontaine.

Keywords : La Fontaine, Fable, Moral, Prudence, Pessimism, Way of Life (라퐁텐, 우화, 교훈, 신중함, 비관론, 처세술)

Received: 15 April 2013 Reviewed: 10 May 2013 Accepted: 15 May 2013
